

이경재 | 국회의원

오 늘 하늘 높이 태양이 솟아올랐습니다. 어제의 태양과 변함없이 보이는 오늘의 태양이지만, 우리가 맞이한 병술년 새해는 우리에게 다른 큰 뜻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예로부터 개는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동물입니다. 사악한 귀신이나 밤손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온 개는 사람과의 사이도 좋아 마치 가족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런 개의 기운을 받아 온 나라가 평화롭고 가족 같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봅니다. 이런 뜻 깊은 병술년을 맞아 환경기술인지를 통해 존경하는 환경기술인 여러분께 신년 인사를 드릴 수 있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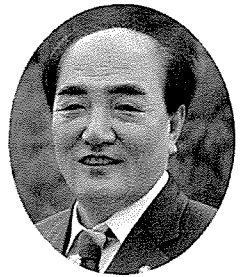
한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의 히트 상품은 'SWEET'로 집약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함(S), 웰빙(W), 엔조이(E), 환경(E), 기술(T)를 각각 일컫습니다. 이러한 sweet아말로 우리 환경기술인 여러분의 손끝에서 맺어지는 상품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올 해도 우리 환경기술인 여러분의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많이 드러내리라 예상됩니다. 수도권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앞서 전략환경평가제도도 도입될 것입니다. 생활환경 오염에 대해서도 생활 소음 규제 기준을 강화하고 새집증후군 원인물질의 권고기준도 설정하는 등 많은 도약과 개선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에 기뻐하기에 앞서 우리 환경기술인들은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율성을 바탕으로 자기성찰을 언제나 앞세우는, 올곧음을 사랑하고 정직성이란 잣대 앞에 정정당당할 수 있는 지식과 정신을 함께 지닌 지식인으로써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앞 으로 가야할 길이 더욱 많은 우리에게 부지런하고 충직한 개의 모습은 걸보기보다 더욱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를 이끌어가는 미래 세대의 구심점이 되기 위해 우리 환경기술인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더욱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중 은 병술년 한 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



국회의원 | 배일도

먼 저 2006년 새해를 맞아 지면을 빌어 환경관련 분야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 월간 '환경기술인' 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환 경노동위원회 간사로 재직하면서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환경을 위해 애쓰시는 환경산업과 관련산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이야말로 진정 애국자이며 환경운동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산업분야 중에서 환경산업은 그 어느분야보다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산업이 명실상부한 국가 경제의 중심축이 되기 위해서는 환경기술인의 분발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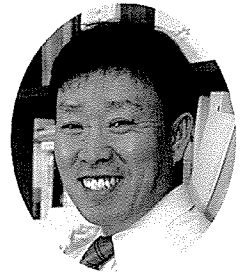
저 는 노동조합 출신의 정치인으로서 “共存”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소신은 개발과 보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개발”과 그 맥을 같이 하며, 이러한 저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환경분야 종사자들의 여러 요구사항과 지적들이

소중한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환 부의 역할이 막중함을 2년간의 의정활동 중 절실하게 느껴왔습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속에서 환경산업의 경쟁력을 꾸준히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환경전문가 여러분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효율적인 입법 활동이 필요합니다.

지 면을 통해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은 환경과 관련하여 관념적인 단순한 환경보존론을 경계하면서 또한 지나친 지역 이기주의에 영합하는 무원칙적인 개발을 막기 위해 저를 “이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환경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를 위한 다양한 제안을 언제든지 저에게 제의하여 주시면 공정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여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독 자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



국회의원 | 제종길

희 망찬 병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5만여 환경기술인 모든 분들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지 난 해에는 환경분야에 어느 해보다도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새만금 간척사업, 천성산 터널공사 문제 등 사회적으로 논란과 갈등이 조정되어 왔습니다. 반면, 정책적 성과로는 정책기조를 매체별 관리에서 수용체인 자연과 인간 중심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고 각종 제도의 합리성을 도모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개 인적으로는 국회에서 환경정책을 관여하는 의원으로서 성과와 아쉬움이 함께 있는 한 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질개선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비점오염원의 특별관리를 위해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통과시켰고, 국정감사에서는 폐광산의 환경오염

과 재해문제를 제기하여 관련정책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하지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이 함께 노력했던 '상수도 일원화와 물관리체계 개선' 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적 논의를 촉박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지만 정부부처의 조직 이해관계에 억매여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따 라서 새해 환경정책은 환경산업 발전을 통한 환경·경제 조화, 환경현안의 사회갈등 예방, 수용체 중심의 정책강화, 법·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또한 환경기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울려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고 환경기술인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병술년 새해에는 환경과 사람 모두가 건강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